

#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까?



서울 선교부장

디 브랜드 클레멘트

**선**한 생활을 하기만 하면 다른 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진리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리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전에 침례받은 회원이 최근에 저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이와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선교인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조그만 집회소에서 갖고 있는 교회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아파트에서 교회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회원들의 수가 많아져서 더 큰 집회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나는 몇 년 동안여의도에 있는 다른 교회에 참석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크고 수천 명

이 참석하는 모임은 성대하고 멋있었어요. 여러분의 집회소는 너무 작아요. 참석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선한 것에 관하여 가르치고 모두 똑같다면 왜 더 큰 교회에 안갑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사람들이 세상의 번쩍이는 것과 멋있는 것에 미혹당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된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는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요셉 스미스에게 수많은 종파중에서 아무 종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종파는 모두 옳지 않은 것이었으며, 그러한 종파의 신조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다 작고한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런던으로 통한다든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사실을 애써 상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위치에서 로마로 갈 수 있고, 나도 현재 위치에서 로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해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특권을 누리거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특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에는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길 이든지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길은 어떤 곳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세에서의 생활은 이 세상 생활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사실을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므로 두번째 등급의 처소에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가장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돈이나 사회의 저명 인사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나 많은 사람이나 큰 건물 등이 참된 교회의 증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한 것은 대개의 경우 정반대입니다.

옛날에 니파이는 “보라, 단지 두 개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니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교회요, 다른 하나는 악마의 교회라.”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니파이

일서 14 : 10~12 참조) 그는 영광스러운 시현에서 참된 교회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적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양의 교회를 보았으니 그곳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도요, 저들이 온 세상에 퍼져 세상을 다스리나, ……그다스림이 적더라.”

간증만이 교회 회원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경전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고대와 말일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주신 모든 계명대로 생활하십시오. 모든 교회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진리의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해 주는 완전한 길을 가리켜 주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대하이나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영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한 표준은 구체적인 것이며, 인간은 그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욕망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정복하며 모든 필수요건을 이해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보의 법칙을 주셨으며,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 율법을 따르려면 죄로 인하여 생기는 영적인 속박을 피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용기를 갖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구세주의 축복된 교회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에서 특별 찬송을 부르는 파우스트 장로와 신권 역원들

서울 동 스테이크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를 위하여 12사도 정원회 회원이신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가 감리하였으며, 한국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와 클레멘트 서울 선교부장도 자리를 같이 하여 스테이크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파우스트 장로는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역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양을 먹이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일반 총회가 열린 26일 아침에는 맑게 개인 날씨가 더욱 회원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8명의 장로와 1명의 70인이 탄생되었고, 5와드 감독으로 수고하였던 민 신희 형제와 청량 와드 감독이었던 조 성호 형제 홍 종대 형제 그리고 황 성식 형제가 고등 평의원으로 부

름을 받았다. 제5와드 감독으로는 이 우영 형제가 그리고 청량 와드 감독으로는 조 만구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조 만구 형제는 5월 첫주일에 청량 와드 회원들이 참석한 성찬식에서 지지되었다. 1981년 서울 동 스테이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완전한 개심"이며, 자신부터 매사에 충실한 성도가 될 것을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하였다. 이어서 파우스트 자매는 손잡이가 없는 문을 예로 들어서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에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이며, 신전 건립을 위한 성도들의 진실된 희생에 대하여 파우스트 장로는 말씀하였다. 신전 안에서 행해질 주님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회원들이 각자 잘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회 말씀을 끝맺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회원과 구도자 약 1,000여명. \*

## 가족에게 증정된 100만권 짜의 물문경

금년에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 대가족"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정된 물문경은 100만 권째에 이르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에 증정한 부수가 백만 권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80년 한 해 동안에 선교사들에게 17만 6천부를 주어서 비회원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교회를 위하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윌리엄 브래샤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책을 받은 사람의 약 10분의 1이 침례받았다고 한다.



## 최 수영 형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교수로 수고하고 있는 최 수영 형제는 지난 4월 "INSTRUCTIONAL SCIENCE"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것은 주로 교육 학습 이론, 교육 자료 편찬, 교육 진단 평가를 배우고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다. 최 형제는 인하 공대 2년을 수료하고 선교사로 2년 동안 봉사한 후에 문교부 정규 유학생으로 도미하여 브리감 영 대학 하와이 분교에서 영어 교육학과 영문학을 전공하여 하와이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 자격증도 받은 바 있다. 애플 컴퓨터를 학교에서 기증받은 그는 컴퓨터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료를 만들었고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한국말 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과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허옥희 자매와 3남 1녀의 가장이기도 하다. \*

## 서울 스테이크 알뜰 바자회



알뜰 바자회 개최식에서 테이프를 끊는 신권 역원들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스테이크가 주최하는 알뜰 바자회가 서울 선교부 운동장에서 열렸다. 서울 스테이크 산하 와드, 지부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성시를 이룬 이날 바자회에는 한국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를 비롯하여 최 육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 남영진 부장, 김 종열 부장, 그리고 김정숙 상호부조회 회장이 함께 개최식에 참여하여 테이프를 끊었다.

건어물과 식용유 약세사리, 실내 장식품, 매듭 작품, 그리고 비축용 식품 등이 전시되고 판매되었다. 입맛을 돋구는 음식도 판매되었는데 인기를 모은 것은 팻죽이었으며, 순대와 김밥도 잘 팔렸다.

신사복 한 벌에 1,000원씩에 팔렸는가 하면 어린이용 옷은 100원에서 500원 사이에 많이 판매되었다. 자매용 원피스도 10만원짜리가 5,000원에 팔리기도 하였으며, 주방에서 쓰는 조그만 그릇들도 많이 판매되었다.

자매들이 손수 만든 실내 장식품도 전시되었고 또한 값싸게 도매 가격으로 판매한 물품도 많이 있었다. \*

## 박 병규 형제, 부산 선교부장으로



부산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박 병규 형제 가족 일동

광주 신학 연구원장으로 수고하였고 광주 스테이크 부장으로 수고하였던 박 병규 형제가 1981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부산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1958년 3월 23일 서울에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된 지 8년 만에 장로 신권을 받았으며, 다음해에는 광주 지부장으로 임명되었고, 1972년 호남 지방부장으로 그리고 1973년 광주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고 계속 봉사하였다. 1980년 10월 25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핁클리 장로에 의하여 광주 스테이크가 탄생되면서 초대 스테이크 부장으로 성별되었다. 부인인 이 영지 자매와 1963년 결혼하여 현재 장남(철홍)과 차남(철승) 그리고 삼남(지훈)이 있다. 1981년 4월 교회 회복 제151연차 대회에서 한국 신전 건립 발표를 들었으며, 5월 17일 광

주 스테이크 부장의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후임으로는 박 하천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이 영지 자매는 1966년 12월 3일에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으며, 광주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과 광주 지방부 초등협회 회장과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박 병규 형제는 한국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전남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교직 생활도 하였다. 23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 일에 봉사하였으며 광주 신학 연구원장으로 일하면서 말일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광주 지방부를 광주 스테이크로 발전시키는 데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은 1981년 6월 말로 그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

## 아르헨티나 선교부장이 말일성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음



아브레아 장로 부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1981년 4월 4일 토요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앙헬 아브레아 선교부장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 있는 물몬 태버나클에서 열린 제151년차 대회 제1총회 개회 순서에서 이를 발표하였다.

현재 47세의 아브레아 장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다섯 선교부의 하나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선교부장으로 3년의 임기를 거의 끝마쳐가고 있다. 그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서는 처음에 교회 총관리 역원이 된다.

3개의 교회 관리 기구 중에 하나인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의 교리에 따라 모든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일을 관리하는 일을 돕는다.

아브레아 장로는 7월에 선교부장직에서 해임되면 첫 임무로써 곧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세워질 신전의 신전장으로 일하게 된다. 김볼 대관장은 3월 31일 화요일에 그를 신전장으로 성별하였다.

현재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은 아브레아 장로를 포함하여 41명이 된다. 그 이외에도 8명의 명예회원이 있다.

이 새로 성별된 총관리 역원은 또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태생인 그의 아내 마리아 빅토리아 치빠리노 자매와 함께 솔트레이크시티로 왔다.

아브레아 장로는 1978년에 선교부장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해스킨즈 앤드 셀즈의 델로이테에서 공인 회계사로 일하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57년 7월 4일에 결혼했고 1966년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신전 결혼을 했다. \*